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농촌의 미래 우수 후계경영인 선발 지원

정읍시가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추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규모 확대와 지속 가능한 영농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중 5년 이상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경영성과와 교육실적, 영농규모 등 전반적인 영농 경영실적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서류평가와 현장 확인, 전문가평가관 검증을 거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경영 운영자금이 용자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마실상권 온라인 시장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 부안군은 부안마실상권 온라인 시장진출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한다. 마실상권내 창업자를 육성하는 창업교육과 라이버커머스, 유튜브 온라인 시장 판매진출을 지원한다.

창업교육은 오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안상설시장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라이브커머스와 유튜브 판매에 관심있는 부안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후에는 수요생을 대상으로 마실상권내에서 창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 온라인오픈마켓 시장진출을 지원 할 계획이다.

부안=김익진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농촌관광연구회 협약

(제)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2일 고창농촌관광연구회와 지역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관광사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수립과 고창 특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고창농촌관광연구회는 농촌관광 명소 유성을 중점으로 20여 명의 회원이 고창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관광 유관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차별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서 재단과 함께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관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익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유기상 고창군수, 재선 도전

“군민 행복 실감하는 고창을 만들 것” 호소… 출마 선언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번 더 높을 고창을 위하여, 한번 더 유기상의 손을 잡아달라,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 탈 수 없다”고 호소하며 14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6.1지방선거 재선 도전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유 군수는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의 약속을 빼고 새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며,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든 민선 7기는 군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준 참 위대한 도전과 성과를 축적하는 시기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한번도 첫수도

비전으로 3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국가계획에 반영, 예산 7천억 시대 개막 및 역대 최대국가예산 확보, 농민수당 지급, 동서남북 농기계사업소 개소 및 농기계 배달서비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경로당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설치, 고창일반산입단지 유치권 해소 및 기업유치, 고창상품권·높을고창카드 출시,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소, 고창군민 삶의 만족도 2년 연속 전북 1위, 유림연합 지속가능 세계 100대 관광지 선정 등의 성과를 보여며 한번도 첫수도 고창의 기틀을 만들었기에 한번

더 높을 고창을 위하여 한번 더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밝혔다.

유 군수는 “민선 8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군민 행복을 실감하는 고창을 만들겠다”며 “서해안 고속화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노을대교 관광지원화, 선운산도립공원과 변산국립공원을 잇는 노을관광해상케이블카 설치, 식품·유류 중견기업·대기업 유치를 통한 3천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창읍성·무장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한옥관광단지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상 군수는 “우리 지역의 일꾼은 정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창군수는 지역 국회의원이 낙하산으로 내리쬐는 자리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인인 우리 군민들께서 선택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이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해주신 고창군민에게만 무한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군민의 일꾼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공약은 ▲ 외국인력 직수입 공급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 농업인화관 건립 ▲ 경로당을 어르신 심신 건강지원센터로 운영 ▲ 소상공인 체 농수산 관련 어르신 인건비 지원 ▲ 1,000원 택시 제도 확대 ▲ 주공아파트 명칭 변경 ▲ 공공신용조리원 신축 ▲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건설 ▲ 출산차려 1인당 5천만원 차관 보급차리 정책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 백내장 수술비용 50% 지원 등이다.

고창=김익식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번 더 높을 고창을 위하여, 한번 더 유기상의 손을 잡아달라,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 탈 수 없다”고 호소하며 14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6.1지방선거 재선 도전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중요”

정읍시, 어린이 대상 무료 구강보건사업 나서

정읍시보건소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구강 보건사업에 나선다.

시보건소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과 병설 유치원 아동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충치 재로 튼튼이(齒)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치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및 100인 이하의 동 지역 초등학교 25개교와 병설 유치원 24개소의 아동 1,230여 명이다.

구강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해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 형성과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로 상담팀을 구성하고, 구강보건 진료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치아 홈 메우기를 통해 아동들이 평생 사용하게 될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인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시장 소비 쿠폰 환급으로 ‘불황 탈출’

정읍시, 은누리상품권 차등 지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2022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인 ‘전통시장 소비 쿠폰(은누리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매출 감소로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금액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에 따라 은누리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차등 지급해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가계지출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개최

부안군은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2022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매창공원에서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전국

적인 치매인식개선 행사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각 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부안군 매창공원 걷기매창공원 포토존에서 인증샷 찍기 ▶ 부안군 치매인식센터 카카오톡 채널 ▶ 인증사진 전송하기 ▶ 부안군민 선착순 5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치매인식센터 홈페이지(bun.ni.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익진 기자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정읍시 신태인시장을 찾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정읍경제의 발판”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 신태인시장 방문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정읍시 신태인시장(상인회장 이훈)을 찾아 상인들의 가슴 속에 진심을 전달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장날인 신태인시장을 방문, 전통시장이 정읍경제의 발판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손을 어루만졌다.

시장 곳곳을 누빈 유 예비후보는 “정읍의 각종 현안과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신태인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시장 곳곳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적지 않은 만큼, 빈 상가가 적합한 업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시장 발전을 위한 애정을 쏟아달라”고 유진섭 예비후보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신태인시장은 유진섭 예비후보에게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에 현재의 전통시장 건물로 건축된 이후 현재 45개의 점포가 입주해 영업 중인 신태인시장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유진섭 예비후보이다.

점포 수십 개가 모여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신태인시장을 새로운 소풍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에 유진섭 예비후보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유진섭 예비후보의 이 같은 진심 손길이 지난해 전북도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신태인시장 노후 시설물과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성과를 냈다.

최근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시장 건물 내부연결 등을 보수하고, 1,480㎡ 규모의 비거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정성을 쏟아부었다.

직사방선 차단과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하는 곳엔 날씨에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진섭 예비후보의 신태인시장을 향한 진심이 잔잔히 녹아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도시 내실 다질 것”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정읍발전 정책공약 내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정읍문학관을 건립하는 한편 공연·전시공간을 늘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취미와 특기가 발현되는 생활 문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이 예비후보는 덧붙였다.

또 “고부관아 복원 등 지역의 동화농민혁명 관련 유적을 제대로 선양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구축할 것이며, 용산호를 비롯한 내장산권 관광자원과 함께 인문자신인 정읍사·상촌곡·수제천 등 정읍만의 문화자산을 특성화한 고유브랜드 역사(歷史)-문화관광자원을 벨트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생활문화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자치단체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이를 도울 정읍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문화도시를 그려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출소 이전과 공연장 설치



등을 포함한 정읍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정읍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정읍역과 정읍천 사이에 문화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체육시설과 함께 화해단지, 빛의 정원 등으로 종합다목적 정읍천과 연결한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여 정읍의 랜드마크화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시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황토현(서복권) 축구장도 새로 지어 고른 생활체육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동화농민혁명 주역의 유적 정비와 녹두거리 조성 추진 ▲마한·백제문화권 유적발굴 복원 사업 추진 ▲용산호-정촌특구 내장호 주변을 잇는 내장산 시계절 관광지화 힐링·휴양·연수도시 정읍 ▲구절초 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고사부리성 조기복원 등 관련 분야에서 모두 13개의 공약을 준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높을고창물, 구독경제 지원사업 선정

전북 고창군 ‘높을고창물’이 국비 지원을 받아 정기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유용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 공모사업’에 높을고창물이 선정돼 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높을고창물은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 내 높을고창물 구독 메뉴를 만들고 정기배달 서비스를 본격 운영해 왔다.

지역의 특산물과 품질이 보증된 농수산물들 ‘구러미상품’과 ‘단독상품’으로 구성해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구

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매주 필요한 농산물을 정기적, 안정적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 ▲1인 가구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즐기는 고객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려는 고객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품으로 최적화했다.

이밖에 높을고창물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21~30일까지 전 품목 30%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익식 기자